

손 세정제와 손 소독제

박미정 교수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아이의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 거의 다 와서 내리기 전에 엘리베이터내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아이 손바닥에 듬뿍 발라주는 것을 보았다.

지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다. 균 감염의 예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뿐 아니라 손 씻기가 강조되고 있다. 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부와 접촉한 후 눈, 코, 입을 만지고 결국 내 몸 속으로 균을 옮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손 세정제와 손 소독제가 곳곳에 비치되어 있다.

손 세정제는 손의 세정과 청결을 위한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물로 씻어 세균을 제거하는 효과이다. 손 세정제는 정제수와 글리세린, 향료 등이 주 성분이다. 알코올제제의 손 세정제는 사용이 간편하고 미생물 제거에 신속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많이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피부가 민감한 유아, 아동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사용하더라도 소량만 사용해야 한다. 세정제 속에 포함된 알코올과 계면활성제 성분들이 있는 세포벽을 파괴해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정제 속에는 파라벤 (Paraben)이라는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보존제, 방부제 성분이 내분비계 장애물질로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손 소독제는 알코올을 기본으로 하는 피부의 살균, 소독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손 소독제 성분인 에탄올이 바이러스 단백질 껍데기의 수분을 빼앗아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에탄올 함량이 높으면 오히려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 부분의 응고되어 오히려 더 단단한 껍데기를 만들어 주게 되므로 약 70%가 살균력이 가장 높고 80%이상에서는 살균력이 오히려 낮아진다고도 한다. 손 소독제의 대표적인 성분은 에탄올,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과산화수소수, 염화벤잘코늄, 크레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의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에 대해 소독 효과를 보이는 소독성분은 염소 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 화합물 등이다.

그런데, 알코올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손 소독제는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보호막을 손상시킬 수 있어 피부가 약하고 민감한 유아에게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보습제를 병행해서 사용하면 좋다. 보습제를 병행한다고 소독효과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손 세정제	손 소독제
성분	정제수 ,글리세린, 향료 등	에탄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등
구분	화장품(인체세정용 제품류)	의약외품
목적	세정위해 물을 사용해 씻는 제품	피부의 살균 소독
효능	항균	소독 및 살균(세균을 죽임)
관리기관	식약처 허가 불필요	식약처 허가필요

사실상 요즘은, 손 세정제와 손 소독제가 너무 난무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골고루 문지르며 씻는다면 마찰을 통해 바이러스를 떨어 뜨릴 수 있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액체형 세정제는 물과 비누를 사용할수 없는 외부에서만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화학성분과 보존제, 방부제가 덜 함유된 고체비누를 권하고 싶다. 세정제이건 소독제이건 개봉 후에는 유통기한을 잘 확인해야 한다. 또, 공공장소에서 손세정제를 사용할 때는 소량을 이용해 손바닥뿐 아니라 손등 및 손톱아래 등에도 골고루 펴 바르고 잘 말려야 한다. 한편, 손 소독제를 구입할 때 식약처에서 인증 받은 '의약외품'이란 걸면 표기를 확인해야 한다. 손 소독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린이에서는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취약한 계층이 화학물질의 복합체인 세정제와 소독제에 꾸준히 많은 양에 노출되었을 때 당장 보이는 피부 건조증이나 피부 민감 반응 뿐 아니라 내분비계에 어떠한 교란을 일으킬지 알 수 없는 문제이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아이와 어머니가 생각난다. 곧바로 집에 도착하여 아이를 잘 씻기면 될 텐데 듬뿍 발라 준 손 소독제가 득이 될까 득이 될까 생각해 보게 된다.